

# 도시 생활자의 쿨한 지구 사랑법

제로웨이스트,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 0(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방식이다. 각종 포장재와 일회용품, 끝없이 쏟아지는 신상품에 둘러싸여 풍요로운 삶을 사는 현대인들이 도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채식의 여러 단계 중 엄격한 단계로 일컬어지는 비건은 고기뿐 아니라 해산물, 우유, 치즈, 버터, 달걀, 심지어 꿀과 가축까지 모든 동물성 식품과 제품을 거절한다. 탄소 중립의 시대 제로웨이스트에 비건까지 실천해오고 있는 일명 제비(제로웨이스트+비건)의 생생한 도시 생존기 '별일 아닌데 뿌듯합니다'(클랩북스)가 발간됐다.



## 必환경 시대 제로웨이스트·비건 삶 담아내 생활 속 다양한 탄소 중립 실천 방안 제시

이 책은 13년 차 사회인이자 살림 초보로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저자가 '제비'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유쾌한 생활 에세이다.

저자는 5년간의 제로웨이스트 실천과 1년간의 비건 지향 생활을 이 책에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 놓는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용기 내 실천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권한다.

그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 택배와 배달을 끊고, 눈앞에 보이는 일회용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돌려주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사지 않고 얻는 방법에 골몰하며, 새로운 물건을 들일 때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료를 신중하게 고른다. 여기까지는 모든 제로웨이스트들이 지향하는 생활과 같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아서 시작한 제로웨이스트이지만, 쓰레기 없이 산 고기에는 가축들의 불행이 녹아 있었다. 조금이나마 가축을 편하게 해줬다는 고기에는 플라스틱이 따라오고 이러한 상황 속 저자는 그 맛있는 고기가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제로웨이스트와 비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흔히 떠올리는 것은 에코백·장바구니·텀블러 사용, 고기를 줄이고 야채와 과일

을 더 먹는 정도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제비의 삶을 선포한다면 스케일이 커진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나무에 열리는 비누 열매 소프넛으로 머리를 감고, 설화 속 바리데기 공주 뻘치는 친환경 빨래 솜씨로 면 생리대를 희게 빨아 쓰고, 국 끓이던 냄비로 엽기떡볶이를 테이크아웃하고, 남이 무심코 길에 버린 투명 페트병을 보면 기어코 주워다 전용 수거함에 데려다 준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스웨덴에서 태어난 2003년생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일침이다. 그녀가 지적한 모순은 대한민국에 비춰 봐도 유효하다. 어린이들은 어쩌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어른들로부터 미래를 도둑맞고, 꿈에 유효기간까지 생기기 된 것일까.

저자는 지금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건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의 몫이라고 강력하게 말

한다.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

이 책도 그런 노력 중 하나로 탄생했다. 사회적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한 책이 여러 권 나왔지만, 대부분 설명서이거나 초보자의 서툰 경험을 나누는 입문서들이다. 그런 종류의 책은 독자들에게 큰 감흥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5년 이상 이 분야에서 활동해온 저자의 이야기는 다르다. 온몸으로 굴러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짠내 나는 생생한 실천기'인 이 책에는 폐기 넘치던 초보 시절의 좌충우돌부터 중수가 돼 스스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고수를 바라보며 자기만의 철학을 정리해 기꺼이 생생하게 담고 있다.

늘어놓으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하나씩 해보면 못 할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다. 저자는 '저마다의 지구 사랑법으로 행동하고 서로를 보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한다. /최명진기자



### 새로 나온 책



####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조원경 저자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각종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대량의 돈 풀기와 이것이 낳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상이 됐다.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가운데 모두 그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경제학자 26인과 그들의 이론을 우리의 식탁 위로 불러내 생생한 현실 사례와 함께 명쾌하게 설명한다. 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뷰캐넌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원리에 대해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다. /페이지2북스·1만8천500원



####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김진명 저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 김진명의 첫 에세이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가 출간됐다. 작가가 살아가는 동안 느끼고 겪은 바를 다섯 가지 갈래로 엮어 구성한 이 책은, 주제와 분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집필해 온 김진명의 깊은 통찰력으로, 독자 스스로 내면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게 하는 낯설고도 반가운 장이 되어줄 것이다. 얼핏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러나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리와도 같은 말을 흥미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일화들에 녹여 넣어 친근하고 흥미롭게 독자를 생각의 길로 안내한다. /이티북스·1만6천원



#### ▲에언자=칼릴 지브란 글, 안나 피롤리 그림, 정희성 옮김

종교 분쟁으로 총성이 끊이지 않는 땅 레바논에서 태어나 미국과 유럽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영성과 물질주의, 동양과 서양의 화해를 꿈꿨던 구도자이자 예술가 칼릴 지브란이 평생을 바쳐 완성한 역작 '에언자'가 그림책으로 나왔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우정, 자유와 폐쇄,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현대의 성서인 '에언자'가 안나 피롤리의 아름다운 그림과 정희성의 편안한 번역, 아름다운 장정의 그림책으로 펼쳐진다. /책읽는곰·1만5천원



#### ▲오늘도 취향을 요리합니다=박미셀 저자

늘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유튜브 '잇츠 미셀'의 첫 에세이가 출간됐다. 그날그날 맛있는 한 끼를 정성껏 차려 먹고, 그 순간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별것 없는 일상을 작지만 활활한 성취감으로 채워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당달아 긍정의 에너지가 전해진다. 이 책에서는 요리와 음식에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그간 영상에서는 전하지 못했던 좀 더 내밀한 일상의 기록들을 요리하는 모습만큼이나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게, 정성껏 담아냈다. /서스테인·1만5천원

## 김무중 기양고고학연구소장, 광주박물관에 도서 기증

### 수집한 국외 도서 7천500여권 기증

국립광주박물관은 최근 김무중 기양고고학연구소장으로부터 국외 도서 7천554권을 기증 받았다. <사진>

김 소장이 기증한 국외 도서는 중국과 일본 고고학 학술자료로 정기간행물, 연구 자료집, 단행본 등이다.

특히 5천여 권에 달하는 일본 고고학저널 정기간행물은 고대 동북아시아 고고학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기증 도서는 국립광주박물관 도서관실(책사랑)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무중 소장은 "40여 년간 고고학자로 수집한 이 도서들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동북아시아 고고학 연구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미 국립광주박물관장은 "김무중 소장 고고학 학자로서 평생 동안 모은 귀중한 도서를 우리 관에 기증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고학 연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존,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무중 소장은 (재)중원문화재단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기양고고학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낙랑문화연구'(2004), '동아시아 고분문화'(2011), '개정신판 한국고고학강의'(2011), '중도문화토포의 기원과 전개'(2020), '백제의 고분문화'(2021) 등 학술발표 연구업적이 있다. /최명진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